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9. 12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

(전자신문 12.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
- ◇ 12월 16일 전자신문 < 새해 ‘전기차 충전특례 없다...한전 “새 요금제 마련”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31일부로 전면 폐지됨
- ☐ 한전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를 충전사업자들에게 전달했으며, 정부와도 사전 조율을 마침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는 현재 확정된바 없으며, 특례할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임
- ☐ 한전이 사업자들에게 예시적으로 제시한 보완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하나의 예시로 설명한 것임
- ☐ 향후 정부와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임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이옥헌 과장/하원석 사무관 (044-203-5173)